

18世紀의 日本體驗

-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

蘇 在 英*

- | | |
|----------------------|-------------------|
| I. 머리말 | V. 崔天宗事件을 통해 본 日本 |
| II. 日東壯遊歌를 통해 본 日本體驗 | VI. 文化的 優越感과 對日感情 |
| III. 金仁謙의 文化意識 | VII. 風習을 통해 본 日本觀 |
| IV. 交隣의 現場과 唱酬·筆談 | VIII. 맺음말 |

I. 머 리 말

조선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中國을 中心한 事大交隣이 바탕이었다. 그러므로 동양문화의 흐름은 자연히 中國을 發信으로하여 한반도를 거쳐 日本에 전승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中國과는 자의든 자의가 아니든 사대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나, 반면 日本에 대해서는 朝鮮이 施惠者의 입장 日本이 受惠者의 입장이 오랜동안 지속되어 왔다. 中國관계만 하더라도 使行關係를 통하여 남긴 記錄들이 수없이 많다. 對明관계의 「朝天錄」 對淸關係의 「燕行錄」이란 명칭이 그 주류를 이룬다. 中村榮孝가 <事大紀行>에서 소개한 사행록만 하더라도 朝天錄 40여종, 燕行錄 65종 도합 백여종에 이른다.¹⁾ 대청관계만 해도 정기적 사행만도 매년 2회씩 있었으니 무려 500여회에 이르며, 이러한 使行의 공식 비공식기록들이 對中關係의 文化的授受의 총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요망된다.

그 가운데서도 18세기는 이른바 實學時代로서 우리 文化에의 충격과 체질 개선을 가져왔던 가장 重要한 時期에 해당하며, 이 무렵에 씌어진 대표적 사행기록만 하더라도 金昌業의 稜齋燕行錄(1713), 洪大容의 乙丙燕行錄(1766), 朴趾源의 熱河日記(1780), 徐有聞의 戊午燕行錄(1798) 등을 들 수가 있다.

한편 日本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이전까지 지속되어오던 교린관계가 豐臣秀吉의 조선침략(1592~9)으로 讐怨의 관계로 돌변하는데, 그후 德川家康의 끈질긴 교린교섭으로 呂祐吉일행의 回禮兼刷還使(1607)가 日本에 파견되면서 國交가 回復된 이래 1811年 金履喬 일행의 對

* 숭실대학교 국문과 교수

1) 中村榮孝, 事大紀行, 靑丘學叢 1집 1930

馬易地通聘이 이루어지기까지 전후 열 두차례에 걸친 通信使節이 日本 땅을 來往하게 된다. 임란 이전 宋希璟의 老松堂日本行錄이나 申叔舟의 海東諸國記는 이미 日本交隣研究의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해 왔거니와, 임란 이후만 하더라도 慶暹의 海槎錄을 필두로 海行摠載라는 이름으로 남은 通信使나 그 隨行員들의 기록만도 20 여종을 헤아린다. 특히 본고의 대상이 되는 18世紀의 대표적 기록만도 辛卯使節(1711) 金顯門의 東槎錄, 己亥使節(1719) 洪致中의 海槎日錄, 申維翰의 海遊錄, 戊辰使節(1748)의 日本日記(작자미상), 甲申使節(1764), 趙曠의 海槎日記를 비롯하여 金仁謙의 장편기행가사 日東壯遊歌등을 손꼽을 수가 있다.

비록 형식적이긴 했지만 중국과의 事大 主從의 관계와는 다르게,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의 回禮兼刷還使로 불리던 명칭이 丙子使節(1636) 이후는 通信使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交隣의 對等關係를 전제로 한 명칭이다. 德川政府의 적극적 講和의 意志와 文化施惠國의 입장에서 壬亂을 통해 背信感을 맛본 조선의 미묘한 對日感情이 교린과 적대감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을 낳게 하는 契機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감정이 해행총재의 곳곳에서 散見된다.

예컨대 중국사행의 경우 稼齋燕行錄에서 보면, 1712년 11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을 거쳐 이듬해 3월 30일 귀경하기까지 146일(약 5개월) 6,028리의 노정을 무려 541명의 인원이 이동하였으니 使行의 규모나 來往이 兩國 政治 文化 經濟에 미친 영향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²⁾ 또 日本의 경우 趙曠의 甲申使節의 예를 보면, 1763년 8월 3일 辭朝하여 江戶에서 새 關白 源家治에게 國書를 전하고 이듬해 7월 8일 귀경하였으니 근 1년 480명의 대열이 수륙양로로 근 4천리를 왕복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만도 막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란 후 이러한 통신사절의 내왕이 이백여년이나 계속된 것은 일본의 계산된 선린정책과 조선의 동양삼국에 대한 힘의 力學關係가 크게 의식되고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18세기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甲申使節(1764)의 한사람이었던 三房書記 退石 金仁謙(1707~1772)의 국문가사 日東壯遊歌를 당시의 정사 濟谷 趙曠이 남긴 海槎日記와 주로 比較 分析함으로써 작자가 日本體驗을 통하여 느낀 文化意識과 韓日兩國間的 感情을 살펴보고, 日人學者들과의 唱酬·筆談등을 통하여 文化施惠國人으로서의 우월감, 壬亂 후 日本에 대한 敵對感을 억누르며 交隣에 앞장서야 했던,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兩國關係의 重要性을 認識시키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2) 黃元九, 燕行錄의 世界, 旅行과 體驗의 文學(中國篇)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참조

3) 姜周鎮, 海行摠載에 대하여, 旅行과 體驗의 文學(日本篇)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참조

II. 日東壯遊歌를 통해본 日本體驗

임란 이후 일본땅을 來往한 通信使節은 전후 12회에 이른다. 呂祐吉 일행의 丁未使節(1607)이 처음이요, 金履喬일행의 辛未使節(1811)이 그 마지막이 된다. 200여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日本을 來往하면서 기록된 海行摠載의 내용을 살펴보면 始終 변함없는 것은, 壬亂으로 말미암은 일본에 대한 격한 감정이며 文明施惠國으로서의 自尊과 優越性이었다. 그러나 時間의 흐름에 따라 繁華해 가는 日本文物에 대한 관심이 더해가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웃한 日本과는 宿命的 이웃으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共存하여야할 宿命的 現實임을 인정하려는 모습으로 점차 변모되고 있다. 특히 18世紀 趙泰億의 辛卯使節(1711)을 비롯하여 洪致中의 己亥使節(1719), 洪啓禧의 戊辰使節(1748), 趙曦의 癸未使節(1763)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의 肅宗~英祖代로 王朝의 封建意識이 차츰 해체되면서 實學의 思潮가 풍미하던 때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東亞三國의 文化的 力學關係가 강렬하게 의식되던 때였으므로 우리나라의 文物·風景·制度들과 相互 比較해 보려는 입장을 도처에서 눈여겨 살펴볼 수가 있다.

日東壯遊歌에서 보면 일행이 日本땅 對馬島에 처음 도착하여 對馬島의 平義暢 以酌菴僧 龍芳 西山寺 加蕃長老를 처음 대했을 적에 그들의 모습부터 이렇게 비교한다.

도쥬의 뺏는거슨 사모형상갓트되는
모즈는 깃이적고 꼴하나 쇼즈시디
인월형 모양으로 쪽뒤의 드리웠고
니정암 뺏는거슨 파리머리 갓트되는
스먼으로 드림하야 투고터로 드리오고
서산장도 쓰는거슨 더고나 고이하야
모양은 휘항갓고 뒤뿔이 썩류하야
귀귀터로 니러시고 꼴하나온 알키었다 4)

여기서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紗帽·투구·揮項에 비겨 설명하고 있는 그들의 쓴 모자에 대한 설명은, 日本땅을 처음 밟는 退石 金仁謙의 세심한 관찰력에 경탄할 만 하다. 또 일찌기 申維翰은 對馬 壹岐를 거쳐 藍島(相島)의 풍경을 처음 대하며 그 섬이 시원스럽고도 밝으며 그 우하고 청초하여 보는 사람이 황홀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이며 지금까지의 航海중 처음보는 신선의 경치라고 그 풍경을 칭찬한 바 있다.⁵⁾ 그러나 退石은 그러한 풍경보다는 처음 대하는 倭의 產物 飲食 制度등에 더욱 관심이 크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꼭 우리의 그것과 比較함을

4) 沈載完 校註, 日東壯遊歌 燕行歌. 韓國古典文學大系 10 教文社 1984, p.111. 本文은 가람 본(서울대)과 淵民本(李家源)의 對校本으로, 이하 引文은 沈載完 對校本 페이지임.

5) 拙稿, 海遊錄에 비친 韓日關係, 崇實語文 4집 1987 p.20

잊지 않고 있다. 가령 茶鍾을 들어 옷칠한 재주, 둥글고 소복한 맵시를 우리 것과 견주고, 무우(菁根) 하나를 보고 길고 크고 물도 많고 우리나라 무우보다 百배가 낫다고 신기해 한다.

효조토란 심거두고 글로구왕 혼자커늘
 뽕서되 보내여서 사다가 써먹으니
 모양은 하슈오요 그마슨 극히도타
 마긋치 모르티는 돌기는 더낫도다
 이삐내여다가 아국의 심거두고
 가난흔 빅성들을 흉년의 먹게 하면
 진실로 도컨마는 시절이 통한하야
 가져가기 어려오니 취종을 어이 향리⁶⁾

孝子土蘭은 孝子藟 즉, 고구마로 모양은 何首鳥 같은데 쌀과 바꾸어 찌먹어 보고 우리나라에 가져가 百姓들의 球荒에 쓰면 좋겠으나 時節이 痛限하여 取種하여 가져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昨年初到佐須奈浦 見甘藟求得數斗 出送釜山鎮 使之取種 今於回路 又此求得 將授於萊州校吏輩 行中諸人 亦有得去者 此物果能皆生 廣布於我國 與之綿之爲則 豈不大助於東民耶⁷⁾

이 기록에서 보면 趙曠은 대마의 佐須奈浦에 도착했을 때 이미 甘藟를 취종하여 故國에 보내고 있으며 또 일행 중 그것을 얻은 이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나라에 文益漸이 木綿 퍼뜨리듯 하면 百姓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하고 있다. 그는 이어 濟州같은 섬의 토질이 이곳 馬島와 같으니 섬작물로 장려하면 食糧事情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하였다. 또 우리 일행이 全鰓을 倭奉行에게 선물로 주자 그들이 전복을 먹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제아비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구멍으로 물이 쉴 적에 생복이 난데없이 그 곳을 막아주어 목숨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에서 보면, 그들의 전래습속을 이해하려는 필자의 노력을 실감케 하는 挿話이기도 하다.⁸⁾

통신사의 해로 중 靺浦(靺浦)의 풍경은 海行摠載에서 기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풍경이 빼어난 곳이다. 일찌기 南龍翼은 그의 聞見別錄에서 바다길의 명승지로 말한다면 마땅히 靺浦로써 제일이 된다고 하고, 申維翰은 그의 海遊錄에서 福禪寺와 靺浦의 풍경을 마치 신기루와 같다고 읊고 있다.⁹⁾

6) 對校本, 日東壯遊歌 p.96.

7) 趙曠, 海槎日記 甲申6月18日

8) 對校本, 日歌 p.132.

9) 南龍翼, 扶桑錄 聞見別錄, 申維翰 海遊錄 참고

초훈의 여섯비가 도포의 다드르니
 빅니는 와이시빅 비후쨌라 흥논고나
 여염과 왜선우희 등불도 장홀시고
 관소는 북선스니 던각도 굉장하다
 녀염의 성흔거시 연노의 테일일쇠¹⁰⁾

靑浦는 靑浦라고도 하며 備後州의 소속된 港口인데, 이곳 福禪寺는 洪景海의 필적으로 된 <對潮樓> 李邦彦이 쓴 <日東第一形勝>이란 현판과 趙泰億 任守幹 李邦彦 三使의 詩를 새긴 현판 韓使聘禮圖등 통신사 유품들이 지금도 福禪寺에 가득 남아있어 <殿閣도 宏壯하며, 여염의 盛한 것이 沿路에 第一>이라고 한 退石의 노래를 실감케 한다.¹¹⁾ 趙曠도 이곳에서 묵은 날의 日記에서, 전후의 信使들이 모두 靑浦를 日本의 第一名勝이라 하여 혹은 洞庭湖에 비유하고 혹은 岳陽樓에 비유하였다고 하고, 이곳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남쪽으로 바라보면 가이없고 동서의 작은 섬들은 拱手하고 揖하는 양 수없이 나열하여 아양을 떠는듯 언덕위의 절은 기묘한 바위가 둘러 있고 돌사닥다리가 서로 연합테다 지붕이 높이 솟아 시원하고 참으로 좋은 江山에 좋은 樓臺라고 칭찬하고 있다.¹²⁾

한밤중에 달은 大阪城의 繁華함은 本願寺를 낀 여염들이 接屋連牆하고 繁華富麗하여 <我國 鍾路에서 萬倍나 더하다>라고 비유하고 있다.

밭도갓고 문도열고 난간도 의디 하며
 마루의 안즈시며 집안히 2득 하고
 기둥의 메여시되 어분은 뒤히안고
 아히는 압히안자 일시의 구슬보되
 그리만흔 사롭들이 혼소리를 아니 하고
 어린아히 혹올면은 손으로 입을막아
 못올게 흥논거동 범영도 엄호도다¹³⁾

통신사 일행을 맞는 日人 觀衆들의 어떤 질서의식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으로, <一時에 곳을 보되 … 法舎도 엄하도다>라고 하여 질서와 통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箱根嶺을 넘고 富士山을 지나면서는 <大抵한 地上嶺이 我國을 論議하면 鳥嶺과 上下하되 예서 富山바라보니 서너층이 더한지라>¹⁴⁾라고 하여, 日本第一의 富士山을 우리 鳥嶺과 비슷하되 서너층

10) 對校本, 日歌 p.160

11) 姜在彦, 朝鮮通信使와 靑浦 江戶時代의 朝鮮通信使 映像文化協會 每日新聞社 1979, 拙稿, 海遊錄에 비친 韓日關係, 崇實語文 4집 p. 21

12) 趙曠, 海槎日記 甲申 1月 11日 (初昏次靑浦)

13) 對校本, 日歌 p. 172

14) 對校本, 日歌 p. 204 現代綴

이 더 높다고 말하고, 海東의 名山 중 第一이라고 칭찬한다. 箱根澤(蘆之湖)의 높푸른 광경은 天地間 奇觀이라 일컫고 우리나라 公갈못(恭儉池)을 장하다고 하지마는 여기 비기면 자취물에 불과하며 <白頭山大澤水와 漢竿山白鹿潭이 이와 비겨 어떠하고>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지난길의 琵琶湖를 일러, <根源없이 절로 뚫려 三百里를 피었으니 景概가 絶勝하여 穢 높주기 아깝다>는 표현도 비교되는 솔직한 自然美의 칭찬이다.

귀로의 對馬島에서 조선의 漂流民을 만나 서로 同胞愛를 나누는 대문을 퇴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강진짜지관포민 남너노소 열흔스름
 어취하라 나왔다가 삼월의 표풍하야
 스월 조일일에 예와서 비다하니
 강호의 취품하고 도선으로 보벌초로
 낭식먹여 두엇더니 놀랍고 불상하다
 스상너 불러보고 체즈만히 흥논디라
 나도 드려다가 벌어물 만히주니
 감격하고 깃거하야 부모본듯 하여한다
 흥나라 사름으로 이국의와 만나보니
 반갑고 귀헝기가 어이아니 그러헝리¹⁵⁾

康津漁民 열 한사람이 漂流하여 이곳에 왔다가 通信使節 일행을 만나 쌀과 魚物로 그들을 도왔더니 父母를 만난듯 기뻐하였으며, 異國땅에서 그들을 만난 感懷가 새로왔다고 하였다. 海槎日記에는 濟州·琉球와는 일찍 원망을 맺은 일이 있으므로 康津居民임을 속이고 있다고 하고, 십여일을 표류하는 동안에 양식도 물도 떨어져 빗물에 옷을 적서 그것을 짜서 마시고 끼니를 굶은지 5일도 지나(표류 16일) 겨우 마도에 도착하여 三房은 음식과 饌物을 나누어주고 여인 중 해산을 앞둔 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간장·미역을 주면서 <조선백성을 낳은 뒤 조선의 음식을 먹도록 하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 빼어난 海洋文學作品으로 張漢喆의 漂海錄, 崔溥의 錦南漂海錄이 있거니와 일동장유가의 이 漂流錄도 비록 짧은 기술이지만 渡航의 어려움과 異國에서 만난 同胞로서의 즐거움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¹⁷⁾

15) 對校本, 日歌 p.236

16) 趙曠, 海槎日記 甲申6月14日(留西山寺), 「生朝鮮民後 喫朝鮮之物」

17) 鄭炳昱, 張漢喆의 漂海錄, 旅行과 體驗의 文學(日本篇) 張德順, 海洋文學의 白眉 漂海錄 旅行과 體驗의 文學(國土紀行) 참고

Ⅲ. 金仁謙의 文化意識

壬亂 이후 열한번째의 通信使節의 한사람이었던 金仁謙은 당시까지 日本을 다녀와 記述한 海行摠載의 名篇들을 이미 읽고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文化優位の인 立場에서 바라본 日本의 文化와 詩文에 대하여 己亥使節(1719)이었던 靑泉 申維翰의 경우처럼, 비록 三房書記의 입장이었지만 自矜과 自慢을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다음의 몇 대목을 통하여 退石의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 ① 귀히년 스힘적의 비레절차 득도아서
가본일 억노고로 청병하고 아니가니
니정암 글을보내고 춘운호야 달라호되
놀이호나 절구호나 와운산인 도서쳤네
화답호야 보낸후의 스방의 드러가니
철언놀이 셋을지어 삼스신과 드리고서
춘운호야 달나호되 스스를 못흔전은
창화를 못호노라 아니지어 주엇고나 18)
- ② 그흥의 근흥독은 후친년 스힘적의
태수의 명을 바다 스신을 영접하고
정춤의 늪은아비 도희라 호는선비
성장과 슈창호던 시훈권 보니엿네
부즈가 분임으로 전후의 다와시니
어렵다 흘거시오 위인이 귀특호야
필답이 도도하고 시놀이 편편호니
륙도록 창화호야 빅운빅놀 호나히오
칠십이운 호나히며 오칠닐 고시절귀
합호야 해게되면 스십슈나 남죽호다 19)
- ③ 수업슨 웨시들이 뵈쳐로 빠히거놀
강질호야 지어주니 귀운이 어렵도다
오칠닐 절구와 고시빅놀 합호여서
다쥬어 헤어보니 일빅삼십 여슈로다
초지의 다히고서 바로써서 주엇기의
흥초의 견질적의 만나마 니줄로다
날마다 이러호면 사람이 못건될쇠 20)

18) 對校本, 日歌 p.123

19) 對校本, 日歌 p.163

20) 對校本, 日歌 p.175

- ④ 이십삼일 식전부터 예놈이 무수이와
 필담이 난감하고 슈창도 즈글하다
 병드러 어려오나 나라히서 보닌꽃이
 이놈들을 제어 할야 밋잇게 향시미라
 병이 비록 통홀딘들 어이아니 지어주리
 일심힘을 다드려서 풍우치로 휘쇄하니
 겨우다 춘운헌면 품속의서 고쳐내야
 여러놈이 홉기주면 턱의다케 빠히노고
 쏘지어 내티면 쏘그쳐로 내어놋너
 노병을 이내근녁 쇠질할가 시브도다²¹⁾
- ⑤ 가마의 제요느려 숨도밋쳐 못쉬여서
 왜선비 다엿놈이 서로가며 글울드려
 춘운헌라 보취거늘 도히퍼고 먹을라
 담빅헌터 먹을공안 여흠슈를 나리쓰니
 그중의 전승산이 글쓰노양 브라보고
 필담으로 써서되던 문전의 퇴석선성이
 쉬짓기를 유명터니 선성의 쓰느직조
 일심치엄 모아시니 험타여 못습느니
 절연코 귀흔벌호 퇴석인가 흥느이다²²⁾
- ⑥ 녀구일 임신이가 황즈유의 미득도와
 슈복산슈 그린그림 가지고와 청헌거늘
 찬지어 써서주고 여괴사름 쇼야전이
 쇼와미도 가지고와 제시 할야 달나거늘
 즈서히느려보니 전후의 슝적의
 제술관 서괴늘어 다지어 주어시던
 저마다 뇨초 할야 흥나볼것 업고나야
 아모리 문장할도 여괴나와 지은글이
 이러케 도터 아니 하니 감흔줄 알니로다²³⁾

①에서 己亥年使行때 拜禮節次를 다룬 일은 1719年 己亥通信使 製述官이었던 申維翰이 배례절차 문제로 雨森芳洲와 論爭하였음을 말한다. 對馬島 以酹菴이 臥雲山人이라 서명한 律詩와 絕句를 보내와 次韻을 청해 왔으므로 退石은 이를 和答하여 주었으나 三使臣은 以酹菴에게

21) 對校本, 日歌 p.179

22) 對校本, 日歌 p.189

23) 對校本, 日歌 p.220

서 七言律詩의 次韻을 요청해왔으나 使事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하고 唱和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②는 通信使 一行이 도중 牛窓 館所에 머물 적의 일이다. 近藤篤은 岡山藩의 使臣으로 바로 앞의 戊辰年 使行(1748) 때는 使臣을 영접하던 인물이며 道熙는 이름을 井上蘭臺라 하는데, 父子가 함께 찾아와 서로 답이 울도록 百韻排律 七十二韻 五七律 古詩語句 합하여 四十餘首를 서로 唱和하였다고 하였다.

③은 大坂城에 머물 적의 기록인데 1月 22일의 일로 날자가 밝혀져 있다. 병이 들어 下處에 누워 있는데 수없는 倭詩들이 산처럼 쌓여 强疾하여 지어주자니 기운을 차리기가 어려웠으며 그 수를 모두 합치면 五七律 絶句들과 古詩排律을 합하여 130여수에 이르렀는데, 이들을 모두 草紙에 대고서 바로 써주었으며 날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되뇌이고 있다.

④에서 보면, 통신사 일행의 글을 얻거나 筆談을 하기 위해 물려온 소위 穢物들 때문에 매우 곤욕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3日是 식전부터 물려와 筆談이 難勘하고 酬唱도 즈름하다고 하였다. 비록 병으로 드러 누워 있는 처지이나 나라에서 보낸 뜻이 글을 통해 이들을 制御하라는 것이므로 결코 사명감에서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지어 내면 쌓이고 次韻하면 품속에서 또 꺼내고 하여 一生 힘을 다해 風雨처럼 揮麗하니 老病한 자신의 근력한 시진 할까싶다고 염려하고 있다.

⑤는 彦根嶺을 지날때의 기록이다. 가마에서 내려 숨도 돌이키기 전에 倭 선비들이 次韻을 보낸다. 담배 한대 피울 동안에 여덟 首를 썼다고 한다. 전승산의 筆談에서 보면 退石 金仁謙의 速筆名詩는 이미 日本社會에서 그 명성이 알려져 있었던 모양으로, 글씨를 보고 退石이 아닌가고 물어 맞히기도 한다. 승산은 사례의 뜻으로 大綴과 銀子を 선물로 주며 弟子되기를 간청하나 退石이 이를 한사코 거절하였더니 승산이 다시 감자와 설탕을 가지고 와 권하기로 行中の 詩箋紙를 내어 이에 답하기도 한다.

⑥은 3月 29일의 일이다. 江戸에 머물 적에 太學頭 林信言의 아들 信愛가 王子猷의 梅竹圖 水墨山水의 贊을 청하므로 이에 응하고, 이 고장 소야전 소아미도 題詩를 청하기에 자세히 보니 전후의 사행적 撰述官 書記들이 지어준 글로 별로 탐탁치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왜선비들이 조선통신사 일행의 贊이나 題詩를 직업적으로 받아 이를 자랑으로 여기며 소중한 재산으로 보관하던 당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日東壯遊歌에는 왜선비들과의 詩文唱酬에 대한 대문이 가장 많이 눈에 띄인다. 앞에서 이미 6개소의 대표적 대목을 인용하여 살펴 보았거니와, 가는 곳마다 왜선비들과의 次韻·唱酬가 그의 주된 임무로 되고 있다.

계암의 네수글을 촌운하야 보닌후의 24)
 념일일 정암승이 글네슈 보내고서
 촌운을 곤청하매 즉녀의셔 지어주다 25)
 이 청승글보내고 촌운하야 달라하디
 스어가 불경키에 꾸짓고 도로주다 26)

이 대목들은 對馬의 溪岩 즉 酏菴僧(龍芳)의 次韻 요청을 응락하였거나 거절한 내용을 말한 대목으로, 對馬에서부터 이러한 文筆外交의 나날이 계속된다.

글스물와있거 늘 주필노서척하다 27)
 열 흥늑히흥키와서 필담과 슈창으로
 좋일 하고 도라가니 이날 지은글이
 들시절구 비합하야 브디기 쉬로고나 28)
 다톳흥이 드린글을 일필의 덕어주니
 손묵거 사례 하고 깃거 흥기 측량업다 29)

江戶로 향하는 도중(濱松)에서도 이런 대목이 자주 눈에 띄이거니와 때로는 집단적으로 물러와 筆談 酬唱을 일삼음이 不知其數이며, 그 가운데 상당수인 僧侶들에게 글을 써주면 감사의 예를 각듯이 표하는 장면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다.

飯後會從事房 招四文士及洪生 各書江戶傳命韻 回程韻 清見寺韻 人名八張 成軸而分之 他時披覽悅如對面也 30)

吉原에 머문 3月 19日 字의 해사일기에서 보면 四文士-南玉(제술관)·成大中(서기) 元重舉(서기) 金仁謙(서기) 및 洪生이 종사관의 방에 모여 王命을 전하는 일 등에 대하여 각각 여덟 장씩의 韻을 써 詩軸을 만들어 分配하는 광경을 볼 수 있으니, 왜선비들과의 창수는 비단 退石 한 사람에게 한한 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우리 文士들끼리는 틈날 때마다 모여 古詩를 次韻하고 作詩競爭을 벌여 열기를 돋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日東壯遊歌에서 마지막 王계 報告하는 대문에서 보면, 使行 중 數千首의 詩를 지었으며 南玉, 元重舉, 成大中 등도 이와 비등하다고 하였으니 이들의 작시 총수는 대단하였을 것이며, 이것이 日本땅에도 韓人

24) 對校本, 日歌 p.126

25) 對校本, 日歌 p.130

26) 對校本, 日歌 p.134

27) 對校本, 日歌 p.200

28) 對校本, 日歌 p.212

29) 對校本, 日歌 p.234

30) 趙曦, 海槎日記, 甲申 3月 19日(留吉原)

酬唱錄 등의 이름으로 많이 남게 되었다.³¹⁾ 이점은 靑泉 申維翰의 海遊錄에도 〈닭이 울도록 자지 못하고 밥을 대하여도 입에 넣었던 것을 토할 지경으로 酬應의 괴로움이 이와 같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退石 金仁謙의 詩文贈酬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家系에 대한 優越感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뿐 아니라 日本에 대한 철저한 文化優位的 思考 그리고 통신사절 가운데서도 자신의 글이 으뜸된다는 일종의 自慢心을 여러 곳에서 엿보게 한다. 退石은 文正公 金尙憲의 현손 夢窩 金昌集의 종질이 되는 家系를 은근히 자랑하고 〈名祖의 孫子로서 文任에 뽑히어 나라 일로 가게 되니 貴하고 奇特하다〉며 〈食物 말고 和國하고 돌아오라〉는 王命을 받들어 그는 나름대로 使命感을 가지고 이를 성실히 遂行한다.³²⁾

고터하분 호오시터 피국의 드러가니
 피인의 분지들이 무섭더냐 언잔터냐
 분지가 유여 혼놈 왕왕이 잇스오나
 시들은 참혹하야 체술 흘출 모른더이다
 네이번 지은거시 다쇼가 엇더 호뇨
 네문스 짓스온것 대략은 ㄱ스오나
 다주어 헤게 되면 슈천수가 되느이다³³⁾

이 대문은 日東壯遊歌의 마지막 通信使 복명대목의 한 부문인데, 일본에는 文才가 빼어난 이가 없고 詩律도 참혹하여 製述할 줄 모른다고 하고, 四文士의 지은 詩가 합하면 數千首가 된다고 하여, 아름답고 奇特하다는 칭송을 받는다. 〈壯洞金門에서 書記 간이 네누구나〉는 물음이 〈故相臣의 무엇인다〉로 이어진 것을 보면 영조왕의 특별한 배려로 錦湖(公州)에 은거 중 被擇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自矜과 責任感이 對日關係에서 節操지킨 이들의 행위를 기리고, 글값도 마다하고 獻身的으로 신명나게 唱酬에 앞장서 倭人들의 기림을 받는 동기가 되고 있다.

IV. 交隣의 現場과 唱酬·筆談

꽤 호고 깃븐일과 지리 호고 난감훈일
 갖가지로 ㄱ초격겨 추년만의 도라운일

31) 對校本, 日歌 286. 「네이번 지은거시 다쇼가엇더 호뇨 / 네문스짓스온것 대략은 ㄱ스오나 / 다주어헤게 되면 수천수가 되느이다」

32) 對校本, 日歌 p.12. 「진스 김인점은 문정공현손으로 / 원일곱먹어습고 공취서스나이다 / 어저네 그러하면 당동더신 몇촌인다」

33) 對校本, 日歌 p.286.

寸손을 뵈차하고 가스불 지어내니
 만의 하나 기록하되 지리하고 왕잡하니
 보시느니 웃디말고 파적이나 호오쇼서³⁴⁾

日東壯遊歌의 이 마지막 대목에서 보면, 使行을 통해 겪은 갖가지 일들을 周年만에 돌아와 子孫들서게 보이기 위하여 歌辭로 지어낸다고 하고, 萬의 하나 支離하고 荒雜하므로 보느이로 하여금 破寂이나 하고 웃지 말라고 하고 있다. 癸未通信使는 1763年 8月 3일에 서울을 出發하여 江戸를 거쳐 이듬해 1764年 7月 8일에 귀경하였으니 왕복에 거의 일년(周年)이 걸린 셈이다. 한편 趙曦의 海槎日記에는 전후 통신사절이 일기를 남긴이가 많았는데 상서 洪啓禧(1748戊辰正使)가 널리 수집하여 海行總載라 이름한것을 부제학 徐命膺이 翻謄하여 息波錄이라 제목하여 61편을 만들어 사신이 참고로 열람할 자료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엄자신도 선례에 따라 일기를 기술하기는 하였으나 전 사람들이 이미 기록한 중복된 내용들을 태만 삭제해버리고, 다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과 어리석은 소견이 미치는 대로 취사하여 海槎日記에 실었으니 불만한 것이 없을까 두렵다고 하였다.³⁵⁾

또 일기를 자세히 적으려 했으나 息波錄 槎上錄을 보니 전인들이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바다를 건너온 후로 거의 쓰지 않았으나 일기도 체류의 기간이 길어 지루하여 劉漢象에게 붓을 쥐이고 자신이 불러 적게 했지만 날짜가 너무 오래되어 소략하게 되어 紀行의 경계만을 적는데 그칠 뿐이라고도 하였다.³⁶⁾ 그리고 통신사절들의 임무수행을 다짐하는 내용 가운데, 息波錄을 보니 丁巳使節(1617) 楸離 吳允謙·朴梓·石門 李景稷이 신사로 갔을 때 뱃멀미(水病) 앓은 일이 있으나 지금은 뱃멀미는 면하였으나 옛사람이 능히 행한 것을 행치 못하면 뱃멀미를 면하게 된 것도 전혀 귀할 것이 없다고 한 대문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使行에의 긴장감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³⁷⁾

船團이 府中(嚴原)에 도착하면 島主(平義暢)는 호행관 以酌菴僧과 같이 배를 타고 마중을 나간다. 以酌菴僧은 德川幕府가 對馬島의 外交文書를 감찰하고 통신사 일행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京都五山에서 파견된 승려로, 이들은 윤번으로 嚴原 以酌菴에 주재하였다. 앞서 申維翰은 己亥使節로 壹岐島의 풍본포에서 對馬文人 雨森東 松浦儀등과 만났을 때 新井白石의 安否를 묻고 있다. 그들이 白石을 어떻게 아느냐고 의아해하자 그는 辛卯信使(1711) 趙泰億에게 익히 들어 안다고 말한다. 이때 조태억은 귀국하여 白石詩抄를 申維翰에게 보이며 그 재주를 칭찬했다고 한다. 그런데 白石은 그 이전 壬戌信使(1682) 제술관인 成碗의

34) 對校本, 日東壯遊歌 p.288.

35) 趙曦, 海槎日記, 癸未年 10月 6日 (渡海到佐須浦)

36) 趙曦, 海槎日記, 癸未年 11月 23日 (留壹岐島)

37) 趙曦, 海槎日記, 癸未年 12月 14日 (留藍島)

詩評까지도 이미 받고 있었다.³⁸⁾

江關筆談에는 白石과 辛卯使節(1711)과의 흥미로운 대화가 오가고 있다. 白石은 일찌기 文忠公 申叔舟가 죽음에 임하여 成宗에게 〈請勿與日本失和〉라 하여 일본과의 和親을 유언하였다고 듣고 있다고 하자, 平泉(趙泰億)은 申文忠公이 자신의 外先이 된다고 강조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앞세워 和解를 다짐한다. 白石은 다시 製述官 東郭(李礪)의 아들에 대하여 묻고, 宣傳 鄭續述의 조상 文忠公 圃隱 鄭夢周에 대하여 묻자 東郭은 續述이 圃隱의 11代孫이며 조상의 지혜를 받아 才略出衆하여 武科에 올라 宣傳으로 信使가 되어 함께 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白石은 다시 鏡湖 洪舜衍에게 壬戌信使(1682)로 왔던 副使裨將 滄浪 洪世泰와는 族人이 되느냐고 묻자, 그는 다만 知舊之誼일뿐 親戚은 아니라고 답한다. 白石이 다시 洪書記(舜衍)·嚴書記(漢重)·南書記(聖重)의 家門과 子弟들에 대하여 묻자 이에 관한 자상한 답변을 하게 된다. 또 白石이 壬戌製述官 翠虛 成琬의 安否를 묻자 洪書記는 이미 他界人이 되었음을 말하며 함께 슬퍼한다. 東郭(이현)이 成琬의 두 子息이 있다고 말하자 白石은 돌아가면 그들에게나마 자신의 吊問을 전해달라고 극진한 당부를 잊지 않는다. 白石은 과거 鄭夢周, 申叔舟가 잇달아 건너와 兩國의 和親을 맺고, 또 壺谷 南龍翼의 丙申之聘 이래 이제 趙泰億이 申公의 外遠孫이 되고 任守幹 李邦彦(南壺谷의 門人)이 鄭南 二公의 後와 함께 오게 되니 이는 실로 隣邦의 大慶이며 이 曠世의 奇會를 기록하여 後世에 길이 남기고 싶다고 말한다.³⁹⁾ 이 平泉과 白石間의 對話에서 보이듯 전후 열두 차례의 使節構成은 물론 職能과 位階가 중요시되었겠으나 韓日兩國의 講和에 공이 컸던 人物과 그들의 後孫 弟子 文人 인척 등을 많이 발탁하여 壬亂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를 和解로 이끌어보려는 努力이 컸던 것을 알수 있다.

18세기에 들어와서는 兩國文士들의 더욱 활발한 唱酬이 있었다. 辛卯信使(1711)의 제술관 李礪 서기 洪舜衍, 嚴漢重, 南聖重은 赤間關(下關)에서부터 왜의 山縣周南 祇園與一 등과 활발한 詩文唱酬을 벌인다(正德唱和集). 또 己亥信使(1719) 제술관 申維翰, 서기 姜栢, 成夢良 張應斗등은 역시 赤間關에서 山縣良齋 雨森芳洲등과 활발한 唱수가 벌어져 明倫館 간행의 兩關唱和錄에 수록되었다. 退石은 이곳에서 〈倭詩스물또왔거늘 潦草하여 내뜨리고〉등 詩作과 唱酬에 골몰하여 밤새껏 전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⁴⁰⁾ 조엄은 그의 일기에서 일본의

38) 金泰俊,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교양, 비교문학산고 1985 참고

平泉申維翰이 귀국하여 戊辰信使(1748) 南泰耆에게 부친 詩 「蠻音蟲篆豈能文 抹殺蓬萊海上雲 白石芳洲今在否 翩翩詩札定 超羣」(靑泉文集2)에서 보면 白石·芳洲의 詩가 그래도 日本文人 가운데 선 뒤편이었으나 日本文化의 알음이 오히려 自然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 崔博光, 18世紀 日本漢詩壇, 日本學2집 1982

39) 通政大夫 史曹參議知製教 趙泰億輯, 江關筆談(京二條 高倉角 八文字屋正兵衛)

40) 對校本, 日歌 p.152 참고

학술은 긴긴밤이라 비유하고 그중 취해서 말하자면 舜首座의 파가 가장 正學이라 하였다.

순수좌는 곧 藤原惺窩라는 인물로 임란 때 포로된 睡隱 姜沆의 영향을 받아 일본 신유학의 뿌리를 심는다. 그의 제자에 宋昌山, 창산의 제자에 木貞幹이 있으니 이가 곧 木下順庵이다. 호를 白石이라 한 源瑣(新井白石)와 芳洲라고 하는 雨森東(雨森芳洲)은 그런대로 모두 글에 능하였으나 中華의 제도를 개혁하려다 죽고 송창산은 제자에 林道春(林羅山)을 두었는데 이가 일본의 文翰을 장악하는 太學頭가 되었으며, 아들 林鶴峰(恕), 손자 林信篤, 다음대의 信充 信言으로 이어져 왔으나 글은 칭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⁴¹⁾ 日東壯遊歌에는 太學頭 林信言이 아들 林信愛와 함께 여러번 나타나는데 <太學頭父子論> 또는 <林哥父子>로 표현하고 있다.

태혹두 힘신언이 아들 임신익과
 전네로 와서뵈매 읊히고 안자보니
 신언은 순근향티 풍증이서 요두하고
 신익은 청숙향야 아비도곤 조금나의
 제자들 데리고와 글여솟슈 드리거늘
 즉석이서 촌운향야 가지고 가노고나 42)

여기서 보면 信言은 醇謹하되 이미 風症이 있어 요두하고, 아들 信愛는 清秀하여 그의 아비보다 낫다고 하고, 弟子들을 데리고와 칭하는 글을 卽席에서 次韻해 갔다고 하고 있다. 다음날은 林門諸生 십여인이 筆談으로 각기 次韻을 칭하여 왔거늘 그 內容에 不敬이 심하여 모두 되돌려보내는 소란도 빚어진다.

조선왕이 보낸 國書에 대한 일본측의 回答書도 林信言이 지은 것인데 그 내용이 예에 어긋난다하여 幹事官 紀蕃實을 통하여 改書해 줄것을 요구하여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海槎日記에 자상하다.

태혹두 부즈놈이 스신너게 별장헌니
 스신너는 아니짓고 각서기로 티작헌다
 종사상담별장은 내가대작 향여주다
 예와서 창화헌던 그리만흔 선비들이
 다물속 와서보고 저마다 별장헌니
 저므도록 화담향여 갖가스로 믋츠니라 43)

41) 趙巖, 海槎日記, 甲申年 6月 18日 (留西山寺)

42) 對校本, 日歌 p.212

43) 趙巖, 海槎日記, 甲申年 2月 29日 (留江戶) 「國書回答書草本 此是太學頭林信言所撰也 …… 故先使 幹事官紀蕃實往傳島主 使之轉通于太學頭 以爲改撰之地 蓋蕃實稍解文字 且與信言有素云故耳」

國書의 回答書를 고쳐받고 太學頭父子의 別章詩에 모두 회답함도 거의 書記들이 代作한다. 江戶에서 唱和하던 많은 선비들의 別章에 답하는데 저물도록 和答하여 가까스로 마칠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조엄도 林信言父子의 文筆을 製述官과 書記의 말을 인용하여, 불만한게 없다고 하였다. 信言의 고조 林道春(羅山)이 처음 太學頭가 되어 乙未信使(1655) 南壺谷 과의 왕복서찰을 보니 자못 문리가 있었으나 그후 대대로 세습하여 태학두 직책을 맡아왔으므로 信言의 글은 보잘 것없다고 評하고 있다.⁴⁴⁾ 또 그는 馬島의 紀藩實(紀國瑞)은 使行의 護行都船主 겸 幹事官으로 江戶까지 함께 했으나 편지글이나 겨우 통할 정도의 글이며, 伊藤仁齋는 異端의 學問으로 童子問이란 글을 통하여 程朱를 批判하고, 荻生徂徠는 맹자이하를 모두 비판하였으나 文章은 빼어났다고 논평하고 있다.⁴⁵⁾

V. 崔天宗事件을 통해 본 日本

통신사 일행 중 都訓導 崔天宗의 피살사건은 당시 韓日間의 意識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초칠일 상방집스 티구스름 최천종이
 기문을 품고고서 제방의도라와서
 줌드러 누엇터니 엇더헌 애흔놈이
 가슴의 울나안자 칼로목을 지른디라
 천종이 놀라썩야 소리하고 니러서니
 그놈이 칼을 브리고 전도히 다라나니
 일형이 경동하야 급히니러 모다보니
 창날갯툰 세모칼을 싹혀노코 누엇논디
 호흡이 천축하야 참아 못보리로다
 묘시냥의 운명하니 참혹하고 불상하다
 슈역을 잡아드려 스신니 분부하디
 만인의게 왕복하야 죄인을 어드라디
 만인이 무상하야 마히경동 아니하고
 저므도록 기드리디 혼말도 아니오니
 절통하고 절분함을 어이다 괴록하리
 종소상하쳐하디 시취가 드리오니

44) 趙巖, 海槎日記, 甲申年 2月22日(留江戶) 「太學頭林信言 與其子 秘書監信愛來見筆談 而文章無可觀云」

45) 趙巖, 海槎日記, 甲申年 6月18日(留西山寺)

상방의 훈터 들고 최봉녕 불러다가
수어사획 허라하고 슈역의게 던 허라네
(바히동님 아니 하니 절통절통혼저이고 46)

통신사 일행이 江戸에서 國書를 전하고 歸國하는 길에 大阪에 머물던 4월 7일에 일어난 崔天宗 피살사건의 전말을 金仁謙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최천중이 開門을 稟하고 돌아와 제 방에 누워있는데 어떤 穢 한 놈이 칼을 天宗의 목에 찌르고 달아난 것이다. 卯時에 殞命한 후 首譯을 불러 죄인을 찾으라 하였으나 저물도록 犯人을 찾지 못하고, 從事의 거처에까지 屍臭가 진동하는 데는 對策이 없는 倭의 처사를 분격하여 그저 切痛切痛하다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 대목을 趙曦의 海槎日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天宗流血淋漓 氣息奄奄 猶能以手按喉 具言其被刺之狀 以爲鷄鳴後 開門告課 歸臥寢所 曉睡方濃之際 臂膈忽然沓沓 驚覺見之有人據臂而坐 以刃刺喉 故疾聲大呼 忙拔其刃 急起欲捉 則賊人蒼黃走之 隣房之火光照處 明是倭人 而氣盡顯仆 連爲發聲 則隣房諸人 始知之矣 47)

새벽잠이 한창일 때 갑자기 칼에 찔렸고 범인은 분명 왜인이었는데 도망해 버리고 소리를 겨우 질러 이웃방 사람들에 의해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都訓導 崔天宗은 왜인의 원망을 살 아무런 일도 없는데 죽게 되어 만약 나라 일로 죽는다면 죽어도 한될 일이 없겠으나 공연히 왜인에게 찔려죽게 되니 그일이 지극히 원통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趙曦의 4월 8日字 일기 가운데는

夜明燈欲寢 合眼之際 忽有窗外應對聲 知是崔天宗之聲矣 警覺不勝悲悽也

라 하여 꿈에 응대할 정도로 갑작스런 天宗의 죽음이 正使였던 趙曦의 충격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죄인을 查覈하여 일 주일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對馬人 鈴木傳藏이란 者로 밝혀지는데, 그 이유인즉

天宗失一面鏡 致疑於渠之偷去 以馬鞭打之 故不勝憤毒 果爲刺殺 48)

46) 對校本, 日歌 p.240

47) 趙曦, 海槎日記, 甲申年 4月 7日(盜殺都訓導 崔天宗 留大阪城) 崔天宗 사건은 1767年 並木正三이란 작가에 의하여 「世話料理鱸庖丁」란 작품에 담겨 大阪의 극장 嵐羅助座에서 연극으로 공연된 바 있으며, 그후 並木五瓶이 「韓人漢文手管始」라는 작품으로 개작, 소위 도진고로서(唐人殺~조선인 살해)로 江戸演劇界의 선풍을 일으키고 歌舞伎에 수록되었다. 角田豊正, 朝鮮通信使와 歌舞伎: 江戸時代の 朝鮮通信使, 映像文化協會

48) 趙曦, 海槎日記, 4月 19日 庚子, 「自夜雨注終日 留大阪城」

에서 보면 천증이 거울 하나를 잃고 傳藏을 의심하여 말채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해 殺害했다는 단순한 동기이다.

초일일전장일을 횡횡한다 혼디라
삼슈역과 삼병방을 보니어 보라하니
일성도란 강불의 극위터로 두로막고
그가운데 관원안자 전장이를 동혀미야
쫄러 안티고셔 예혼눔 칼가지고
넙혀서척적으니 머리싸히 느껴지니
혼눔덕령 향엿다가 머리를 불의써서
역관과 군관들이 밧겨서 보고왔네
상명을 게유하니 괴슈를 못죽이니
하늘이라 잇터호러 분훈홀 썩롭일다 49)

5월 1일 傳藏을 처형한다기에 三首譯 三兵房을 보내어 보게 하니 月生島 강물가에 傳藏을 끓어 앉히고 칼로써 梟首하여 죽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魁首를 죽이지 못하니 <하늘인들 어찌 하리 憤恨할 따름이다>라고 단순한 범죄가 아닌, 背後를 분명히 가리지 못함을 원통해하고 있다.

壬亂(1592)에서 癸未通信使行(1763)까지는 17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다. 그러나 통신사 일행의 출발에 앞서 상이 친히 <二陵松柏>(宣陵·靖陵)이란 글귀를 외우면서 <好往好來>의 네 글자를 사신들에게 써주었다는 기록(8월 3일·조엄)에서 보더라도 壬亂의 감정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았고 使節을 敵地에 떠나보내는 조심성을 읽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日本에 대한 감정이 犯人 체포를 늦추고 또 처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일행의 불만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崔天宗金漢仲李光河三樞同載於倭船 使之出送釜山 而移文嶺營 論報備局 請其駕牛之題給行
關於地方官大邱羅州 東萊 使之顧恤厚埋 50)

崔天宗, 金漢仲, 李光河의 靈柩를 실어 부산으로 보내고, 영남감영에 移文을 지방관에는 關文을 보내 장사를 당부하는 대목이다. 최천종 외에 金漢仲은 <부산통인 김한중이 초십일 죽다하니 참혹하고 불상하다.>⁵¹⁾에서 李光河는 <격군의 니광하가 전에 발광하였을제 제목을 제가 찢러 그후에 완함하고>에서도 그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崔天宗의 죽음은 특히 한일간의 묘한 감정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이 사건을 계기로 볼 수가 있으며, 屍身을 거두는데 필요한 옷이랑 이불이랑 각 물품은 倭國產品은 한가지도 쓰지 말고 路資의 남은

49) 對校本, 日歌 p.264

50) 趙暉, 海槎日記, 5월 5일 戊辰晴 「大阪城-今日是端陽節也」

것과 員役들의 부조로써 변통해 쓰게 하였다는 대목에서도 당시의 對日感情이 잘 드러나고 있다.⁵²⁾

부복선장 뉴진원이 좌수포 이실적의
 빈궁과 낙상하야 병드러 누엇더니
 오논예와 직스하니 참혹함도 참혹할샤⁵³⁾

여기서 보듯이 副卜船將 俞進元의 客死까지 포함하면 癸未通信使行에서 만도 네 사람의 犧牲者가 난 셈인데, 이는 海槎日記 가운데에서도 〈오백명 이역사행 가운데 네 사람의 죽음, 병으로 죽는 것도 참혹한데 하물며 崔天宗의 變怪임에라〉라고 한탄하고 있다. 최천종과 이광하의 죽음으로 大阪에 머문지가 만 1개월, 그동안 韓日間에 오간 外交的 신경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는 동안 역관 중에는 수천금을 무역한 자 마저 생기고 去來중 임에 발선하기를 꺼리는 자도 있어, 丙子使行(1636)시 金東溟이 倭가 주는 金塊를 金絶河(投金河)에 던져 버린 옛일이나 金仁謙 자신이 酬唱揮毫의 사례로 주는 幣帛까지 되돌려주는 행위와 건주어 불적에 너무 차이가 지는 행위들임을 한탄하고 있다.

VI. 文化的 優越感과 對日感情

金仁謙은 비록 三房書記의 資格으로 通信使를 수행하였으나 자신이 王問에 답했듯이 文正公 金尙憲(1570 ~ 1652)의 玄孫 壯洞大臣 金昌集(1648 ~ 1722)의 五寸姪이라는 자랑스런 家系의식도 있었지만, 王이 三使를 떠나보내며 〈二陵松栢〉의 글귀를 외우며 〈好往好來〉 네 글자를 써 전별하던 감격을 되새겨 병중에도 倭 선비들의 글을 次韻하고 글값으로 주는 선물도 받지 않을 뿐더러 朝鮮國의 체면을 손상하는 行爲가 있을 때마다 이를 抗辨하고, 壬亂의 자취를 밟을 때마다 옛 感懷에 새삼 마음을 가다듬는다.

미명의 문져나서 달너를 지나올시
 신원슈 김장군의 진터를 브라보고
 울시한슈지어너여 충혼을 위로하다⁵⁴⁾

이 글은 忠州 달래강(達川)을 지나며 壬亂時 격전장이었던 申砮將軍과 金如物의 背水陣을 바라보며 律詩를 지어 忠魂을 위로하는 대문이다. 이 詩는 癸未正使였던 조엄의 海槎日記 酬唱

51) 對校本, 日歌 p.210

52) 趙暉, 海槎日記, 甲申年 4月7日 「使之看檢收屍等事 而衣裳各物 不付倭產一種 以盤纏所在及員役所助」

53) 對校本, 日歌 p.108

54) 對校本, 日歌 p.18

錄 가운데도 남아 전한다.

彈琴臺물에 限을 남기고
野馬臺 깊은 원수 어이 잊으리
山河는 아직도 기운이 장하건만
猿鶴은 오히려 슬픔이 남았네
過客에겐 슬픈氣慨 더하고
외로운 배 홀로 물결을 거스린다
百年의 臥薪嘗膽 아픔을 간직하고
눈물 가리우며 東萊로 내려 간다 55)

일본을 잊을 수 없는 깊은 원수[深讐]라고 하고 申元帥 金將軍의 敗戰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하였다.

슬프다 임진년의 이곳치 도흔지리
충무공니장군이 직회여 방비하면
왜병이 강타흔들 제어이 등눅흔리
삼경이 함불흔고 승애가 파천흔샤
거의망케 되엿다가 황은이 망국흔샤
천병이 나온후의 계유회복 헉어시나
간신이 오국흔야 강화는 무스일고
훗크립고 분한길을 열흔번치 헉느노나
한하늘 훗날원슈 아초잇고 가게되니
량부의 노흔터럭 판을덜러 이려선다 56)

이 대문은 釜山에서 永嘉臺에 올라 倭館과 絶影島를 바라보며 읊은 노래다. 壬亂時의 講和를 <奸臣의 誤國>이라 말하고 三京의 陷沒과 大駕의 播遷을 가져온 倭侵의 不共戴天之讐를 친화하기 위한 使行을 <丈夫의 怒한 터럭 冠을 찢러 일어선다>고 말하고, 丁未通信使(呂祐吉 일행) 이래 癸未使節이 열 한 번째가 되매 <부끄럽고 분한 길을 열한번째 가는구나>라 하여 '부끄럽고 분한 길 로 표현하고 있다. 退石이 鳥嶺을 지나면서 읊은 詩 가운데서도

만약 한사람만 이 要塞를 점했던들
그때에 行長을 손쉽게 잡았을걸 57)
若使一夫先據險 當時容易賊行長

55) 趙巖, 海槎日記 酬唱錄, 過彈琴臺(金仁謙)

56) 對校本, 日歌 p. 36

57) 趙巖, 海槎日記 酬唱錄(過鳥嶺)

이라 읊어 당시 어이없이 당해버린 돌이킬 수 없는 歷史的 수모를 후회하고 있다.

건너편 뵈는곳이 박다진이라 호는고나
박제 상 순의호고 나흥유가치이며
정포은슈절호고 신고령와잇던디
다 예라 니르디만 못가보니 애 훑도다 58)

라 하여 옛 신라적 王弟 末斯欣(美海)을 돌려보내고 대신 죽은 朴堤上을 생각하고 고려조의 충신 羅興儒가 간혀 있었고, 鄭圃隱(1337 ~ 1392)이 사신으로 건너가 守節하였고 申高靈(叔舟)이 通信使節(1443)로 와있던 곳이 이곳 博多津이라지만 바라만 볼뿐 가보지 못하니 애 닳기 그지없다고 하였다. 朴堤上의 기록은 海槎日記에 더욱 자세하다. 博多津은 藍島에서 바라보이는 곳인데 倭音으로 和家多라 하고 申叔舟가 霸家臺라 부른 후 그 名稱이 倭國에서 통용되었는데 王子를 위해 죽기를 楚나라 春申君의 故事처럼 하여 그 아내가 鵝述嶺에 올라 남편을 바라다 죽어 山神이 되었다고 하여 三國遺事의 사실을 그대로 援用하고 있다. 또 鄭夢周와 羅興儒의 報聘도 언급하여 金東溟 世濂의 霸家臺韻을 次韻하여 朴堤上의 遺魂을 위로하고 있다.

죽음도 영광이라 슬퍼할 까닭없네
몸은 비록 잡혔으나 혼은 응당 갔으리라
霸家臺 이름한것 진실로 잘못이라
節介를 표하자면 砥柱臺라 일컬을걸
일곱그루 소나무만 슬픔을 간직하고
천년의 孤魂은 돌아가지 못했구나
저불녀 두어窰이 하늘밖에 푸르르니
뱃사공은 이를바로 伯家臺라 말하네 59)
死可爲榮不必哀 身雖未還魂應廻
霸家賜號誠知誤 表節宜稱砥柱臺
七松遺跡儘堪哀 千載孤魂尙未廻
日暮 數峯天外碧 舟人說是伯家臺

이러한 朴堤上의 忠誠은 海行摠載의 到處에서 散見되는데 특히 己亥使節(1719)의 製述官이었던 申維翰의 海遊錄 <哀博多津>에도 그 사연이 더욱 具體的이고도 哀絶하게 기술되고 있다.⁶⁰⁾ 赤間關(下關)에 이르러서는 鎌倉幕府 源賴朝(1147 ~ 1199)의 箭김을 받은 白河后가

58) 對校本, 日歌 p.140

59) 趙嘏, 海槎日記 酬唱錄(藍島次 金東溟霸家臺韻)

60) 拙稿, 海遊錄에 비친 韓日關係, 崇實語文 4집 1987 참고

어린 아들 安徳天皇을 업고 달아나다 익사한 安徳墓故事를 회고하고, 豊臣秀吉(1536~1598)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腰斬한 沙工 주길의 祠堂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높은 뵈는 넘게 하고 낮은 뵈는 높게 하고 바른 물은 에게하고 굽은 물은 곧게 하여> 山水마저 고이 둔게 바이없는 秀吉의 심술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駿河의 金絶河를 건너면서는 丙子使行(1636)때 副使였던 東溟 金世濂(1593~1646) 일행이 倭人에게서 받은 金銀寶貨를 바다에 던져넣은 옛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신을 다시한번 가다듬는다.

김동명 여기와서 예놈주던 금과은을
물속의 다더디고 빈손으로 도라오니
넷스톱의 붉은브람 뉘아니 흙모하리⁶¹⁾

조업도 金絶河에서 投金詩에 次韻하여 <황금덩이를 흙덩이처럼 보았다>고 하고 <東溟의 맑은바람 언제고 남아있네>라고 읊조리고 있다.⁶²⁾ 이 기록이 海槎日記 甲申2月6日の 기록에는 丙子信使(1636) 任桃金世濂 黃屎가 倭人들이 남은 日供米를 바꾸어준 黃金을 이 강물에 내버렸다고 하여 投金河 또는 金絶河라 이름하였다고 하고, 그 청렴한 風格은 百世 후에도 오히려 늘연히 사모할만한 가치가 있게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退石의 기질이 <선비몸이 되어 글지어 주었노라 값은 어이 받을소냐>하며, 글값으로 주는 선물과 大綴·銀子를 모두 물리치고 손수 模範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인에 대한 이러한 潔癖과 勝癖이, 日本關白에게 國書를 바치는 儀式에도 參席치 않는데 까지 미치고 있다. 國書를 모신 使臣은 부끄럽고 痛憤하나 王命을 전하는 일이라 不得已하지만 退石 자신은 글짓는 선비로서 굳이 굶보리 함께 들어가 개같은 穢놈들에게 굴욕을 볼 필요가 있느냐면서 三使의 동행·권유를 끝내 거절한다.

안갓다가 도로나와 국서볼 모시고서
드러가 스빅하고 스투단 드리고서
또빅레 혼후의 관빅연의 또절 하고
하덕홀제 또절하니 전후의 네스빌쇠
당당홀 천승국이 네관네북 호초고쳐
머리찾근휘류의게 스빅하기 엇더홀고
퇴석의 아니온일 붉기가 측낭업네⁶³⁾

國書를 드리기 위하여 關白에게 四拜禮를 베푸는 의식을 <堂堂한 千乘國의 禮冠服을 갖추

61) 對校本, 日歌 p.198

62)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過金絶河)

63) 對校本, 日歌 p.216

고서 머리끝은 醜類(倭)들에게 四拜하는 것이 屈辱의 사실임을 말하고, 자신의 참석지 않은 일을 부럽기 측량없다고 客觀的으로 서술하고 있다.

黃帕는 關白에게 받들어 전하고
 대그린 障子아래 蠻官들 도열했네
 松栢의 陵前길을 어찌 차마 지나왔나
 壬辰난리 자취 밟아온것 부끄럽네
 碧蕙의 冠아래 흰머리 치솟는다
 神蛟의 匣속에 무지개빛 차가와라
 해지나고 비로소 回答를 가져가니
 鼻塚의 근심구름 눈물로 바라본다⁶⁴⁾
 黃帕攀傳關白所 畫筠障下列蠻官
 忍過松栢陵前路 愧涉龍蛇劫後瀾
 碧蕙冠中華髮豎 神蛟匣裏紫虹寒
 經年始待回書去 鼻塚愁雲淚眼看

關白에게 國書를 바치는 恥辱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二陵(宣·靖陵)松栢>을 친히 외며 경계하던 英祖의 뜻을 생각하고 壬亂의 자취를 밟아온 자신의 行蹟이 倭의 잔인한 행동을 생각하면 머리끝이 서고 같이 우는데 癸未年(1763)에 적국에 와 甲申年(1764)에 관백의 答書를 얻어 가니(2月7日) 鼻塚에 서린 愁雲을 눈물없이 바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⁶⁵⁾

Ⅶ. 風習을 통해본 日本觀

靑泉 申維翰의 海遊錄에서도 볼 수 있는 바, 癸未通信使節의 한 사람이었던 退石 金仁謙의 눈에 비친 日本도 文化的으로 상이하고 劣等한 면모를 여실히 살펴 볼 수가 있다. 對馬의 佐須浦에 처음 入港하였을 적에 본 倭人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집형상이 궁승하야 노덕덤이 굵고내야
 굵보논왜인들이 뵈히안자 구버본다
 그들의 스나히논 머리를 찢가시되
 쪽뒤만 조금남겨 고초상토 하여시며

64) 趙巖, 海槎日記 酬唱錄(江戶傳命)

65) 鼻塚은 耳塚이라고도 하는데 壬亂時 왜의 전공을 자랑하기 위하여 朝鮮人의 코를 베어 이를 소금에 절여 모아 묻었다는 豐臣秀吉의 잔학성을 상징하는 무덤으로, 지금도 京都의 豐國神社 앞에 남아 있다. 拙稿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韓國研究院 1980 참고

발벗고 바디벗고 칼하나식 츠이시며
 왜녀의 치장들은 머리는 아니짜고
 밀기름 들북발라 뒤호로 잡아막아
 족두리 모양쳐로 둥글게 꾸며잇고
 그곳춘 두로트리 빈혀를 질러시며
 무론노쇼 귀천하고 어레빗술 쇼갓고나
 의복을 보와하니 무업손 두루막이
 혼동단 막은스미 남녀업시 혼가지요
 녀고큰 접은뵈를 느죽히 둘러뵈고
 일용범빅온갓거손 가슴속의 다뵈었다
 남진잇는 거집들은 감아호게 니를칠 호고
 뒤호로 썩를미고 과부쳐너 간나히는
 압호로 썩를미고 니를칠터 아났고나
 의총닌 고은집신 남녀업시 신엇고나⁶⁶⁾

집모양은 높은 露積가리같고, 남자는 깎은 머리 苦草상투에 바지도 벗고 신도 벗은 채 칼을 차고 있다. 여자는 머리를 족두리 모양으로 질러 밀기름을 바르고 비녀와 빗을 꽂고 있다. 남편잇는 여인은 이를 까맣게 칠하고 뒤로 띠를 매고 寡婦處女들은 흰이빨에 앞으로 띠를 띠고 짚신을 신고 있다. 이 대문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日人들의 생활풍습을 낮추어 기록한 한 단편이다. 그 가운데서도 비단옷에 成赤을 하고 雪綿子로 머리를 싼 女人이 있어 通詞에게 물으니 베풀하는 자의 妻妾이라는 대답이다. 이 기록은 海槎日記 가운데서 보면, 이미 시집간 사람은 이(齒)에다 물들이고 시집가지 않은 사람과 과부, 창녀는 모두 이를 물들이지 않는데 이에 물들이는 법은 그 남편을 위해 마음을 맹세하는 것으로 음란하고 외설된 풍속이 禽獸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지극히 추잡한 일이라고 못박고 있다. 또 葬禮의 풍습에도 언급하여, 倭人은 死者에게 棺槨을 쓰지 않고 灰葬을 하여 寺刹에 매장하고 神牌를 간직해 두었다가 거기 제사지낸다고 하니 무식함이 심하다고 비웃고 있다.⁶⁷⁾

방마다 구들업서 다물속 마로방의
 다담이를 담북썰고 바람벽은 아니 호고
 스면의 밀장디로 브람을 막아시며
 그안의 금병풍을 녹첩을 쳐이시며
 베포필목 도희붓과 축디화로 담비더를
 다석도로 민드라셔 다각각 노하시며
 비단니불 비단뇨를 사롬슈로 드리논터

66) 對校本, 日歌 pp.86 ~ 88

67) 趙曦, 海槎日記, 癸未年 10月8日(留佐須浦)

니불은 소매이서 설면즈로 우히두어
 듯겉기 측냥없고 요모양은 마이널너
 니불쳐로 크다하고 소음을 장히두어
 안받기다비단이 각식빚치 다잇고나 68)

住生活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다미방에 金屏風을 두른 후 벼루, 墨, 종이, 붓, 燭臺, 火爐, 담배대 등을 들고 비단이불과 요(褥)를 사람 수대로 갖추는 접대장면까지 묘사하고 있다. 또 배가 對馬를 지나 壹岐島에 머물렀을 때 女人들의 저속하고 음란한 풍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포변왜너들이 우리릭 브라보고
 통스의게 말을비화 도션스름 부르거늘
 격군훈눔 티답호되 어이 호야 부르느니
 오늘밤 너집의와 날과호티 자고가소
 격군이 마다호니 왜너가 웃고호티
 못삼것다 못삼것다 증심이라 호리로다
 일련의 사름들이 일시에 대쇼호고
 이후는 그놈드려 텍성이라 일크르니
 열업고 붓그러워 흘말업서 호는고나
 날마다 언덕의서 왜너들 모다와서
 젓너야 ㄱ르치며 고개조아 오라호며
 불기너여 두다리며 손져어 청도호고
 옷들고 아력뵈며 부르기도 호는고나
 념치도 바히업고 풍속도 음난호다 69)

통신사절 일행의 배가 壹岐에 닿자 창녀들이 몰려나와 노골적인 呼客行爲를 일삼는다. 날마다 여인들이 찾아와 젓통을 내어 가리키며 불기를 두드리며 옷을 들고 아래를 보이며 부르기도 하는 노골적인 呼客行爲를 退石은 <廉恥도 전혀 없고 風俗이 淫亂하다>고 못박고 있다. 단, 大阪城에 입성하여 목격한 풍경을 말하는 대목에서,

제나라 귀가부너 젓집의 든닐적의
 바디 아니 넘어기의 서셔오좁 누게되면
 제슈쵸 그뒤히서 명지슈건 가젓다가
 달라호면 내여주니 드르미히연호다
 제형이 죽은후의 형수불 계집삼아

68) 對校本, 日歌 p.106

69) 對校本, 日歌 p.134

드리고 살게되면 착다하고 기리티는
 제아오 길너싸고 데수는 못흔다너
 네범이 바히업서 금슈와 일반일다.⁷⁰⁾

라고 읊은 것을 보면, 처음 대하는 해괴한 야만적 풍습을 禮法에 어긋나는 禽獸와 같은 무리라고 叱責하고 있다. 貴家の 婦女들이 바지를 입지 않아 서서 오줌을 누면 종이 명주수건을 가지고 대령하였다가 뒤를 닦아 준다. 또 제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살아 칭찬을 받으나 아우의 경우 弟嫂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南壺谷의 聞見別錄에도 <男女間無別 淫風大熾>라 하였고, 申靑泉의 浪華女兒曲에도 大阪의 풍습을 말하는 가운데 청루기생들의 猥褻된 행위는 참아 입에 담을 수 없을 뿐 아니라 倭人の 新樂府 30장 가운데는 男娼의 해괴한 풍습까지 읊고 있다. 그리고 옷에 싹이 없고 아래는 바지를 입지 않으므로 무릎을 꿇고 옷을 여미고 앉지 않으면 性器가 그대로 노출되므로 이러한 풍습이 자연히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⁷¹⁾

日東壯遊歌에는 女人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使行 도중 醴泉에서는 兵房軍官이 미리 도착하면 일등미녀를 差出하여 시중들게 해달라는 간청을 받고 그의 好色癖을 징치하기 위하여 일부러 늙고 엷은 薄色女를 골라 수청들게 하여 그를 실망시켰다가, 新寧에서는 그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려 一等妓生을 뽑아 다시 兵房軍官의 마음을 풀어 주기도 한다.⁷²⁾ 또 義興에서는, 戊辰信使(1748) 때 李保寧(자문이)이 이곳에 유숙하면서 守廳妓와 관계를 맺어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母女를 좀 만나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딸이 일행 중 裨將의 茶母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차모를 욱보일까 염려하여 자신의 차모와 바꾸도록 하고 아버지의 安否를 전하고 義興사또에게 당부하여 그녀를 官婢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⁷³⁾ 또 釜山에서는 慶州妓가 정든 님을 찾아 單騎로 2백리를 달려와서 연인 李裨將을 만나려 하였으나 慶州伯이 軍奴를 보내 妓生을 잡아가려고 하자 退石은 그 心情을 살펴 오히려 豪俠을 칭찬하고 風流를 성취하도록 적극 도와주기로 한다. 배를 타고 日本을 향해 떠나는 대목에서도 각방 守廳妓生들이 情人들을 껴안고 차마 아쉬워 떠나지 못하는 광경을 <우습고奇怪하다. 그러두고 보고지고>라고 읊고 있으며, 使行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길에서는 그 사이 기생들이 마음이 변하여 他房에 들고 마중하지 않는 모습을 <아무리 妓生인들 그 사이 못 참아서 다물속 아니오니 可痛하고 可笑롭다>고 비웃고 있다.⁷⁴⁾ 이처럼 떠날 때나 도착시에 자주 등장하는

70) 對校本, 日歌 p.178

71) 拙稿, 海遊錄에 비친 韓日關係 pp.14 ~ 15

72) 對校本, 日歌 pp.22 ~ 28.

73) 對校本, 日歌 p.26

74) 對校本, 日歌 p.82

妓生들과의 희롱과 일행과의 흥미로운 사랑의 묘사도, 일단 일본땅을 밟으면서는 자신의 사명감 역사적 대일감정 등이 의식되어 日本女人들을 보고는 <趙飛燕 楊太眞도 무색할만한美人들>이라는 데서 그치고, 다만 倭女の 음란한 행동만을 규탄할 뿐 對女關係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노래는 <자손을 뵈자하고 가사를 지어내니>에서 보는 것처럼 창작의 동기가 子孫에게 日本體驗을 보이게 하는데 目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對倭女關係에서 다만 <엮치도 바이없고 풍속도 요란하다>라고만 하여 표현의 한계를 짓고 있어, 의식적으로 여성관계를 공적사절의 입장에서 생략한 듯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論者는 주로 金仁謙의 日東壯遊歌를 趙曦의 海槎日記와 比較하면서 18世紀의 韓日關係를 分析하고 評價해 보았다. 더구나 日東壯遊歌는 海外 國文紀行歌辭의 嚆矢가 되는 작품으로, 그 分量만도 근 9천귀에 해당하는 방대한 장편이다. 그로부터 130여년 후 1895년 (고종 32) 李台植이 지은 국문가사 日本遊覽歌가 있다. 이 두 작품을 比較해 보면 벌써 18世紀와 19世紀의 對日本觀이 얼마만큼 변모되고 있는가를 實感하게 된다.

이러한 兩國의 관계는 通信使節의 마지막 辛未使節(1811)의 對州易地通聘 이후 明治維新을 겪으면서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보면 金仁謙이 수행했던 甲申使節(1764)은 壬亂 이후 격앙된 對日 感情을 나름대로 수용 전향하는 契機가 되고 있으며, 文明施惠國으로서의 조선이 강제된 交隣 關係를 맺은 이후, 日本文化의 相對的 發展으로 지난 날의 감정을 억누르고 共存할 文明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해야할 方向으로 치닫게 된다.⁷⁵⁾

金仁謙의 日本體驗은 이러한 位相을 바탕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日東壯遊歌를 통해 理解할 수 있다.

첫째, 壬亂 이후 韓日兩國의 感情問題를 들 수 있다. 작품 가운데 <倭놈><穢놈><왜인> 등으로 卑稱한 대목만도 근 50개처에 이른다. 이러한 감정은 전후 12회에 궁한 통신사절들의 공통된 감정이며, 시골선비 退石이 王命을 받고 離發하여 심지어 壬亂의 자취를 밟는 날부터 國書を 전하고 돌아오기까지 始終如一하다. 근본적으로는 對中國의 事大思想과 對日本의 文明施惠國으로서의 自尊的 意識이 표리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이 壬亂을 겪고 交隣의 물결이 인 이후에도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75) 崔康賢, 日本遊覽歌, 文學思想 38·39號 1975. 李成厚, 日東壯遊歌와 日本遊覽歌의 比較研究, 啓明大 教育大學院 1981 참고

둘째, 退石의 詩文唱酬와 筆談 등을 통해 對日本觀을 읽을 수 있다. 네 文士의 지은 詩가 數千首에 달한다고 했다. 對馬에서 江戶에 이르기까지 日本의 碩學들을 만나 次韻・唱酬하기에 병이 나고 꼬박 밤을 새웠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靑泉이 新井白石이나 林羅山の 詩를 낮추 본 것처럼, 하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일동장유가에서도 平義暢 以酌菴 西山長老 紀國瑞에서 太學頭 林信言・信愛父子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세째, 崔天宗의 被殺事件에서 범인 鈴木傳藏을 처형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보면 韓日間의 날카로운 感情對立을 살펴 볼 수 있다. 首譯 兵房들을 보내어 犯人의 사형을 확인하지만, 그 배후의 魁首를 죽이지 못하니 憤恨할 따름이라 하여 倭를 夷狄視하면서도 그 힘의 實勢 앞에 분노하는 한 선비의 儒家的 裏面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國書를 전하는 儀式에 참석을 거부하는 退石의 행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네째, 야만적인 日本의 風習과 文明을 질타하면서도 그들의 自然條件이나 都市文化 產物 등에 관심을 보이는 憎惡와 羨望의 양면성을 느끼게 한다. 倭女들의 呼客行爲 등 야만적 풍습은 拒否의인 것이지만, 行路途中의 自然風景 특히 大阪 등지의 현란한 都市文明을 경이적으로 바라보며 그럴 때마다 꼭 우리나라의 현상들과 比較하는 態度가 이채롭다. 孝子土蘭(고구마)을 보고 우리의 救荒을 생각함도 그 한 예가 된다.

18世紀의 通信使行은 중국(燕行)을 통해 實學的 文明을 수용하는 한편, 日本을 통해 兩國의 敵對感을 조정하면서 우리 歷史의 黎明을 열어가는 가늌자(照尺)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江關筆談같은 곳에서 보면 대대로 通信使들의 구성은 交隣을 바탕으로 축적된 經驗이 바탕이 되었고, 日東壯遊歌도 退石으로 하여금 對日感情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이땅의 均衡感覺을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XPERIENCES IN JAPAN IN THE 18TH CENTURY

-Centering on *ILDONG JANG YUKA* -

This paper is a study on Kim In Kyum's (金仁謙) *IlDongJangYuKa* (日東壯遊歌) whose style is *KASA* (歌辭) (an old form of Korean verse) by which he had sung the experiences during the stay in Japan as a member of *T'ongshinsa* (通信使) (an envoy dispatched to Japan from Chosun) in 1764.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nsist of six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I briefly argued what is the writer's viewpoint of thinking of Japan throughout this book.

In the second one, I argued the writer's standpoint of comparison our classical scholarship with Japanese urban civilization.

In the third one, I state, focusing on the actual spot, that the literati between Chosun, and Japan had exchanged each other their conversations by writing and the prose and poetry.

It was also stated in the fourth chapter how the Chosun's strong emotions had been toward Japan, caused by the assassinating *Ch'oi Ch'eon Jong* (崔天宗) who had been a member of the *T'ongshinsas*.

In the fifth, It was analysed not only the emotional 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Japan's invasion of Korea in 1592 to the 18th century through the come-and-go of the *T'ongshinsas*, but also the sense of cultural superiority of chosun people to that of Japanese.

In the last chapter, I argued Japan's savage customs as one of illustrations that back up the abovementioned cultural superiority on the comparative standpoint of contrasting our customs with those of Japan.

As a conclusion, I found-out the fact that the writer had had the opinion of regarding Japan as the barbaric country on the basis of the chutzuistic classic scholarship, therefore he had considered Japanes culture in the negative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he had also highly and affirmatively spoken of the development of Japanese urban civilization the natural beauty of that country, and the kindness of its people. His opinion was led in the end to the point that the public ill feeling against Japan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practical one so as to become the friendly relations and the interchange for the good between both nations as the fatally bound countries.

I am proposing that *IIDongJangYuKa* be worth being highly praised as a work, as an original genre of *Kasa* style, covering 8,000 phrases written in wholly *Hangeul* (Korean alphabet.)

